

# 자조금사업 정착을 위한 기초 확립

김 재 민 축산경제신문 기자



**2008**년 양계산업, 좀 더 범위를 좁혀 채란계와 육계 모두 가장 큰

이슈는 방심하는 순간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아닌가 싶다.

2007년 11월~2008년 3월까지 AI가 발병하지 않으면서 성공적 방역을 자축하던 때에 발생한 이 질병으로 양계업계는 물론 오리업계까지 엄청난 살처분이 이어졌고 대도시인 서울에까지 AI가 발병하면서 소비가 곤두박질치는 어려움에 전 양계업계가 몸살을 앓았다.

## AI 예방은 없었다

집안에서는 티격태격 싸우다가도 위기상황이 오면 하나가 되는 가족처럼 이번 AI라는 위기를 한 달여 만에 종료 시키는 저력을 정부와 양계업계는 발휘했다. 하지만 그러한 저력 이면에는

엄청난 혈세가 쏟아 부어지는 살처분과 보상이라는 것이 맞물려 있었다.

AI가 국지적으로 발생했다가 상황이 종료되는 일본과 달리 국내는 한번 발병했다하면 그 확산속도는 무서울 정도로 빨라 국내의 질병발생을 미리 차단하는 방역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지금 당장 양계장을 찾아가만 봐도 상당수의 양계장들이 농장 앞 소독장비를 갖추지 않은 곳이나 가동이 중단된 곳이 대다수이다. 생석회 한번 뿌려 놓으면 한 달 이상 가는 가장 쉬운 방역 활동이지만, 농장 입구와 계사 입구에 뿌려 놓은 곳이 많지 않을 정도로 느슨한 방역의식과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방역당국의 안일함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발병 후 뒷수습에 쏟아 붓는 막대한 예산의 10% 만이라도 이러한 예방을 위한 교육, 단속,

그리고 방역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에 사용한다면 혹 발병하더라도 일본과 같이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수준에서 상황을 종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과잉생산과 구조조정

2005년 이후 원종계 도입물량이 국내 소비기반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들어오면서 장기 불황에 육계업계는 힘들어 했고, 산란계도 무분별한 입식과 환우, 계사의 신축 등으로 올해 6천 만수 가까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어려움에 빠져 있다.

회전수가 빠른 양계산업은 수급조절만 제대로 된다면 큰 돈 버는 사업임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가격 하락으로 줄어드는 수익을 물량확대 즉 규모화로 이겨보려는 농기들과 계열사들의 노력에 수익률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다.

계열사가 중심이 된 육계산업은 이러한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이겨내지 못한 몇몇 업체가 도산하거나 인수 합병되고 있고 육계산업이 몇몇 대형계열로 재편되면서 서서히 물량을 줄이려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지면서 늘어날 대로 늘어난 육계농가는 병아리를 받을 곳이 없어 고통 받고 있다.

채란업계의 경우 상인들의 할인 횟수가 더욱 심해지고 여기에 사료값까지 폭등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생산조절 최후 수단 아니다

대한양계협회 등 농가들이 빼든 카드는 생산부분의 수급조절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연초 AI 발병으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부족으로 진행속도는 느리지만 당장 16만수까지 수입되던 육용원종계 물량을 12만수까지 줄이는 쪽으로 주요 계열과 원종사들이 합의를 해둔 상황이다.

산란종계 업계가 채란업계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채란분야 종계감축과 쿼터제 부활은 사실상 어려워져 채란업계는 자율 입식 중단을 선언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어서 생산부분 수급조절은 현 위기상황(사료값 폭등과 양계산물 가격하락)에서 실패한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문제는 늘어날 대로 늘어난 채란업계의 생산능력을 놀릴 수 없다는 농가들의 현실 상황과 계속 물량을 늘려 성장을 이어가야 하는 대형 계육회사들의 상황이 물량제한을 용납하지 않는데 있다.

전체 양계산물의 생산을 진두지휘할 생산자보드나 원종계부터 물량을 엄격히 관리하는 정부의 개입이 없고서는 수급조절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 소비확대 모두 만족하는 결과

계란과 닭고기의 소비량은 최근 몇 년간 계란은 연간 200여개 내외, 닭고기는 9kg 대에서 정체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성장이 없는 제한된 시장에서 서로 크고자 노력하면서 물고 물리는 점유율 싸움에 닭고기는 덤펑판매가 자행되고, 계란은 할인(D/C)폭이 커지면서 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낙농과 같은 쿼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쿼터제의 도입을 누가 주

도하고 각 주체를 이해시킬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각 개별농장의 상황과 계열업체의 성장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요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친환경 축산물, 그리고 간편한 가공품의 개발, 무엇보다도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판촉과 홍보가 양계산업에 절실한 상황이다.

유럽 등 선진국은 이미 쇠고기나 돈육 시장을 닭고기가 압도한지 오래고 소비자들도 닭고기가 좀 더 몸에 좋다는 인식으로 소비패턴을 바꾸고 있지만 국내만은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 구조다.

즉 성장가능성이 아직 큰 시장임을 감안했을 때, 소비확대를 위한 자조금사업의 도입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자조금 사업 기초 놓은 해

수년째 지지부진한 양계분야 두 자조금 채란과 육계자조금은 드디어 올 연말을 기점으로 방향을 잡았다. 수납기관 문제로 진통을 거듭해온 채란업계는 도계장 거출에 합의하면서 대의원 선출에 들어갔고 육계자조금도 관리위원회선출을 마무리 지으면서 내년도 사업 진행에 대한 확신이 업계 전반에 퍼지고 있다.

사업진행을 가로막을 수 있는 변수 AI발병, 거출금분담 문제 등 돌발 변수에 대해 업계의 철저한 점검으로 내년에는 사업진행을 통해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양계산물 시장은 포화상태를 넘어 장기 불황에 빠져 있다. 전략적 접근으로 자조금 사

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각 주체 간 대화와 입장조율을 통해 내년에는 최소 계란 250개 닭고기 10kg 이상 소비를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 고질적 구조 개편 문제

유통의 후진성과 가격 결정의 불투명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란계와 농가와 계열사 간 불공정 논란과 끊임없는 대립은 올해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고 있다.

양돈협회 덕에 계열사와 농가 간 계약관계에서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된 것은 큰 성과라 하겠지만 몇 가지 계약상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는 것에서 논의가 중단된다면 우연히 얻은 기회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아깝지 않을까.

육계업계는 농가들과 계열사가 대등한 입장에서는 수평계열화로의 산업 재편을 선언해 놓았지만 아직 구체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채란업계는 아직 밀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어 아쉬움이 깊어지고 있다.

자조금이 본격적으로 거출되고 사업계획이 수립될 때 육계와 채란계 구조개편을 위한 연구용역과 다양한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전문가 군과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유통과 채란농가, 계열과 육계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해가 저물어 간다. 늘 위기와 어려움만이 가득한 축산업계 그중 양계업계도 어김없이 어려운 한해를 넘기고 있다. 내년 2월을 기점으로 사료가격도 하락 반절될 것으로 보이고 자조금사업이 출범하는 해이니 만큼 내년에는 양계업계에 희망을 꿈꾸며 2008년을 마무리 했으면 하는 소망이다. **양계**